

대행 스님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말겨 놓으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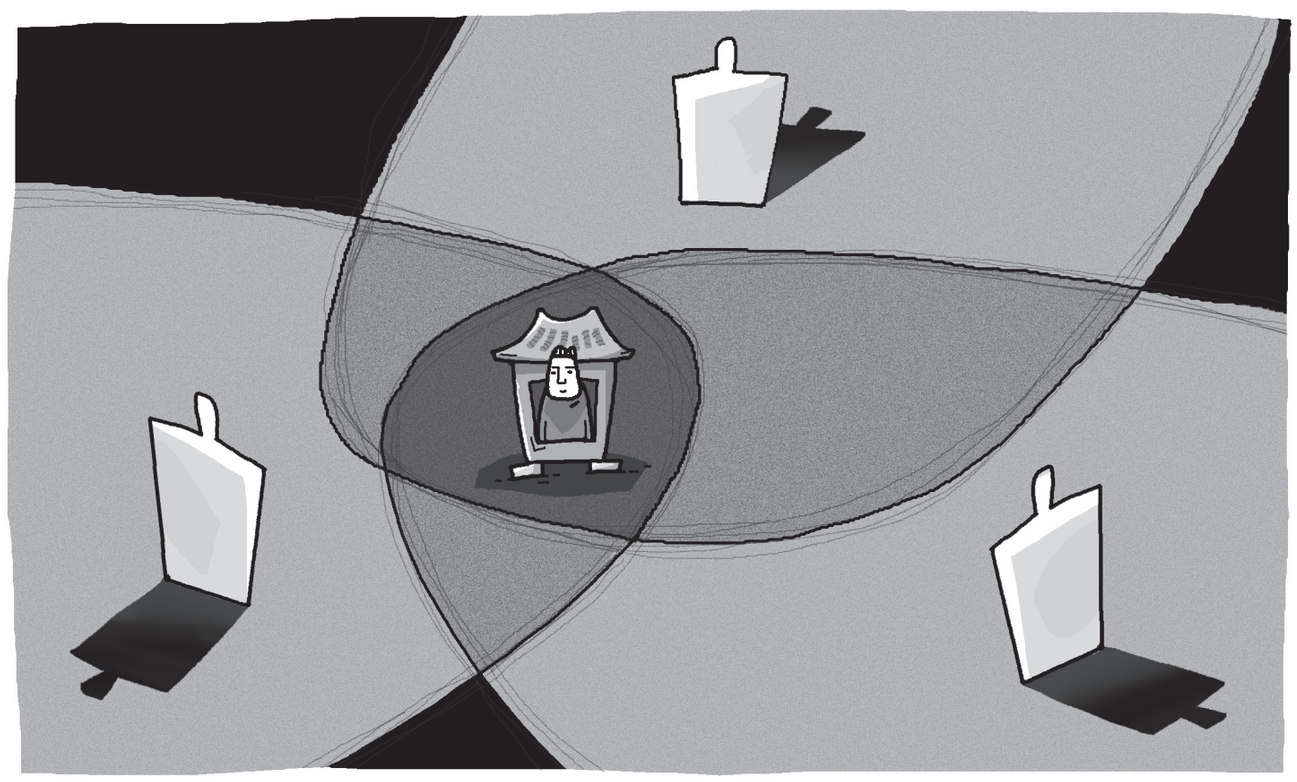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짐승의 탈을 써 보십시오. 개 탈을 썼다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내가 사람이다' 하고 사람의 말을 해도 개가 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개 탈을 썼으니까 개로 대접하지 사람으로 대접을 해 줄 수가 없지요. 한 가지 예로 표현을 할 때 말입니다. 그처럼 아무리 사람의 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양이로 태어났거나 독사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의식으로 아무리 말을 한답시고 지저대고 찍찍거려 봤자 그것은 뱀의 소리고 벌레의 소리고 개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무서운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나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이, 저놈 급살이라도 맞아라." 한다든가 "너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한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도 없이 말을 해도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업식들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명이 이러니까 우리도 인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니까 '아이구, 인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선고를 그냥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그대로 될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깡통을 차려고 그러느냐? 너,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넌 항상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막 욕을 해 댔는데,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에게나 부모에게나 부부지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모두가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는 알게 나오기 마련이고 모르고 하는 거는 모르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여러분이 한생각으로써,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라면 '거기서 안된 것이 나온 거니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다.' 하고 되돌려 놔야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 발을 왜 평발이라고 했을까요? 하다못해 지렁이 발도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렁이 발이 어딨느냐고 하시겠죠? 하여튼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나셨다가 열반하셔서 이제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한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거죠. 일체제불이 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십니다. 왜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50%에 매달려서 그렇게 허덕입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100%의 한세상을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신계의 50%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둘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점점 발전력과 창조력이 약해질 겁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사, 박사들이 어떠한 것을 알아내서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지 완전히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고를 호소하면 그 병고를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고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병고만이 아니라 애고라든가 모든 걸 말입니다. 만약에 의사, 박사들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병고의 싹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그 병이 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부 하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안 들었다고 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을 놔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를 한 찰나에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의 숙명을 아주 꿰뚫듯이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타심을, 명백히 남의 속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려면 초, 심지, 성냥, 켜는 사람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되 절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자기 자성 부(父)를 만날 것입니다. 자(子)와 자성 부가 같이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평등공법이요 수레공법이요 활궁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일러 주신 이 길을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다 하더라도, 망상이 수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병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묵은 빚도 갚고 햇빛도 줄 수 있고, 나를 발견해서 이 세상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끌어다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알 수도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멀고 가까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던 것은, 우리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목마른데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찾아와서 어디가 어떠니 어디가 어떠니 이럴 때에 나는 내 대답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말을 하고 가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양쪽의 전깃줄과 같으니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전깃줄이 딱 붙게 됩니다. 사람이 전깃줄을 갖다가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그냥 와서 쩔꺽 붙게 돼서 하나로 되면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들어왔을 뿐이지 양쪽의 전깃줄은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 줬다,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내가 마음을 낸 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나

☞ A28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